

뚝방 424곳 가뭄해갈 효과 톡톡

전남지역 모내기·밭작물 생육 큰 도움 생태계 복원 일석이조...道, 조성 확대

전남도가 지난 2007년부터 조성한 424개 생태 연못 '뚝방'이 올 모내기와 밭작물 가뭄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강우량이 47mm로 지난해 같은 기간(119mm)의 39%, 평년(155mm)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18일 현재 4대호 저수율이 45%이며,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49%를 기록, 전년(67%)·평년(66%)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천수답의 모내기와 고추·참깨·고구마 등 밭작물이 수분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됐지만 그동안 조성된 뚝방이 모내기와 밭작물의 생육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진도 군내면에서는 뚝방에 저장된 물을 활용해 천수답 2.5ha의 모내기를 정상적으로 했고, 고추와 대파 등 밭작물의 생육 정상화에도 크게 도움을 줬다.

전남도는 지난 2007년부터 친환경 농업단지에 생태계 복원 및 용수 확보 대책 일환으로 '뚝방'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24개소를 조성했다. 오는 2014년까지 200개소를 더 조성할 계획이다.

뚝방은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농업 용수원으로 산간계곡의 유량을 조금씩 모으고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뭇다가 가뭄 때(갈수기) 농업 용수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했던 수원이다. 지난 1980년대 경지정리를 하면서 뚝방을 대신한 저수지와 댐, 관개수로가 조성됨에 따라 한때 사라지기도 했다.

뚝방은 또 수질을 정화하는 개구리

밥·부레옥잠 등이 자라고 아시아실잠자리·연못하루살이·소금쟁이 등 수생동물들이 많이 서식하는 등 생태계 복원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 전종화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처럼 모내기 가뭄 때는 용수원으로 생명을 살리는 오아시스 역할을 할 수 있어 뚝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뚝방을 매년 100개 이상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모내기 추진율은 18일 현재 97%로 마무리단계이며, 마늘양파 등 밭작물 수확도 99%가 완료됐다.

○/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양파 수확 일손돕기 농협 전남지역본부 행복나눔 대학생자원봉사단(단장 김한길)은 최근 무안군 청계면 남성리 들녘에서 양파수확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단은 고령화에 따른 영농철 일손부족 농가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목포시의회 의장 민주 당내경선 선출

25일까지 후보 등록

목포시의회 후보인 구 구성을 앞두고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오는 27일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최근 당협회의 회 주 박지원 원내대표와 별도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역위는 오는 25일까지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후보 등록을 받고, 27일 후보를 선출한 뒤 하루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29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소속 시의원 16명 가운데 의장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만 6명에 달해 다수의 동수 득표에 따른 보완책도 내놨다.

시의장과 상임 위원장은 1차 투표를 실시해 9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면 3차 결선 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를 의장 후보로 선출하고 1위 동수 땀 연장자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강진군, 쌀귀리 소득작목 집중 육성

을 105ha 계약재배 400여t 생산 8억원 소득

강진군이 쌀귀리를 겨울철 특산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강진군은 올해 정부수매가 완전히 폐지되는 보리산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쌀귀리 계약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강진군 쌀귀리 재배면적은 105ha로 양곡 유통업체인 두보식품(주)과 2년째 쌀귀리 전량 수매 계약을 맺고 있다. 군은 올해 쌀귀리 생산

량이 400여t으로 전량 수매시 8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보리 대비 2배 이상의 소득이다.

최근 수확결과 전년도 수확량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전국 최대의 쌀귀리 주산지 조성을 위해 쌀귀리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구입 계약을 지난 5월 농촌진흥청과 체결했다.

안준섭 농업연구사는 "현재 강진군 쌀귀리 산업은 올해 2년째로 아직 초보 단계이지만 내한성이 약한 쌀귀리의 특성상 파종일 및 파종량 등의 조절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며 "맞춤형 재배기술을 개발한다면 강진군이 쌀귀리 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쌀귀리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 식품이면서, 통곡물 가운데 유일하게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슈퍼 푸드'(superfood)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18일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한옥호텔인 '영산재'에서 목포시중합사회복지관 관계자와 결손가정 아이들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와 멘티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전남개발공사 제공>

"우리가 울타리 되어 줄게"

전남개발공사 결손가정 아이들 결연

전남개발공사가 결손가정 아이들과 결연을 맺고 경제적 지원 등 다양한 후원활동에 나섰다.

19일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주열)에 따르면 공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결손가정을 돕기 위한 '휴먼 멘토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학습비 지원, 멘토 역할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는 이를 위해 우선 조부모 또는 한 부모 가정 등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3세대 총 7명의 초·중학생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멘탈 일일역의 학습비 지원을 비롯해 교복구입비, 의료비 등을 후원하기로 했다.

공사내 여직원 모임인 '여우회'(회장 김희영)와 노동조합(위원장 김윤수)도 결손가정 세대별로 멘토단을 구성하고 매달 1회 이상씩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정서적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들 멘토단들은 집안 청소와 음식 만들어 주기는 물론이고 학습지원 활동,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상담 등을 통해 결손가정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결손가정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주시-NH농협은행 업무협약

200억원 조성 中企 자금지원

나주시는 최근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지부장 최명수)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나섰다.

관내에는 560여 중 소 제조업체가 있으나 대부분 영세해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신용 및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나주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나주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7월부터는 절차를 간소화해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시에서 추천한 중소기업은 우대금리(1%) 적용과 나주시의 2.0%의 금리 이차보전으로 최대 2억원까



새얼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겠다"

박성규 목포 해양안전심판원장



"수요자 중심의 조사·심판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18일 취임한 박성규 목포 지방 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은 "조직원 상호간 조화를 통한 화기에 의한 직장생활로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공정한 심판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게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 출신인 박 원장은 목포 지방 해양안전심판원 원선박 과장,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담당, 항행안전정보실장, 인천 지방해양안전심판원해사안전 과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미배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천년의빛 영광
Glory Yeongwang

천년의 빛 천년의 맛 천년의 흥 천년의 멋

경축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영광 법성포단오제

장소: 영광군 법성면 숲쟁이공원

6월 21일(목) ~ 24일(일) (4일간)

영광군수정기호	영광군의회 의장 이종윤	의회운영위원장 나승만	의원 강필구
부군수 박영윤	부의장 김양모	자치행정위원장 양순자	의원 김봉환
		산업건설위원장 박영배	의원 장기소

영광종합병원 이사장 조용호	영광기독신하병원 이사장 김경욱
병원장 오승균	병원장 이만재